

## UR 협상의 실패를 재연하겠다는 것인가!

- 청와대 홍보수석은 책임질 수 있는 근거자료를 공개하라 -

우리는 “한·미 FTA에서 쌀 시장만 지키면 농업개방 겁낼 필요없다”는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의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접하고 참담할 따름이다. 발표내용을 보면 분명 한·미 FTA 강행을 위한 내부 근거자료에 입각하여 쓰여진 글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미국과의 FTA 협상에 임하고 있다니 경악과 분노마저 느낀다.

당사자와 농림부는 과연 우리농업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은 무엇인지, 경합·공존 품목, 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또다시 UR 협상 실패를 재연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농축산업에 대한 참여정부의 시각을 짐작케 할 뿐 아니라, 문제인식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현재 낙농산업은 UR 협상 이후, 국내 유제품 형성은커녕 소비량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생산을 하면서도 감축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우리농업이 그토록 경쟁력이 높다면, 미국정부와 낙농 단체들이 왜 한·미 FTA를 적극 찬성하면서 관세철폐를 요구하겠는가!

정부가나 청와대의 사실인식이 그렇고, 근거로 사용된 통계자료가 이미 나와 있다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기고문이 아니라, 자료를 공개해야 마땅하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이와 같은 선전행위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한·미 FTA 강행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경쟁력 운운하며 근거없는 논리로 우리 농축산업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그 동안 내세워 온 참여정부의 농업희생 의지란 말인가!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농업희생을 바란다면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재천명한다. 아울러, 금번 국정감사를 비롯한 의정감시 활동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여야 각 당의 활동을 지켜볼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6. 9. 22

한국낙농육우협회